

독자 문의

고등학교 출결,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시험을 치르면서 자주 아팠습니다.
조퇴, 지각, 결석을 몇 번
했는데요. 대입에서 질병 결석과
지각은 어떻게 평가받나요?
또 대입에 출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_서울 서초구 독자

표 1_ 고등학교 학생부 '2. 출결 상황' 기록 양식

학년	수업 일수	결석 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 사항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1														
2														
3														

자료 교육부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 요령

(*결과는 학교에 등교는 했으나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및 학생이 수업을 방해했을 경우를 말한다.)

표 2_ 2024 중앙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출결 반영

미인정 결석 일수		1일 이하	2~3일	4~5일	6~7일	8~9일	10일 이상
환산 점수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실기/실적 (실기형)	10	9.2	7.8	5.6	4.2	3.4
	논술	10	9.8	9	7.5	5.5	2

자료 2024 중앙대 수시 모집 요강

표 3_ 2024 서강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출결 반영

구분	구분 및 반영 점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반영 점수	100	98	96	90	0
출석 (미인정 결석일)	0~3일	4~6일	7~9일	10~14일	15일 이상
출결 관련	- 총 결석 일수 = 결석 일수 + (지각 일수 + 조퇴 일수 + 결과 일수) / 3 - 총 결석 일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최종 산출 - '미인정'으로 분류된 출결 값을 정량으로 반영				

자료 2024 서강대 수시 모집 요강

실질 영향력 크지 않아 대학·전형별 차이는 주의

A

대학은 출결을 학생의 성실성과 관련해 살핍니다. 반영 비중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준 이상의 ‘무단’ 출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무단 출결이란 ‘미인정’ 출결과 같은 의미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출결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학생의 본분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에 대학마다 평가 기준에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기준 이상의 무단 출결에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대개 미인정 출결을 바탕으로 출석 반영 점수를 정량적으로 계산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 지역균형전형의 경우 최대 3일 결석까지 100점(총점 100점), 중앙대 지역균형전형은 최대 1일 결석까지 10점(총점 10점)을 각각 적용합니다. 서강대의 경우 전형 총점의 10% 수준이지만 만점 인정 기준이 비교적 관대하고, 중앙대는 전형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죠. 다른 대학도 비슷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출결이 실제 합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 평가로 따로 특정한 기준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미인정 지각 1회나 미인정 결석 1회도 감점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형·대학별로 출결 반영 방식이 다르니,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덕원여고 김상근 교사는 “개근이 가장 좋지만, 미인정 지각 1~2회 정도는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고교 3년간 피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전형의 경우 면접에서 미인정 출결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이 자신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셈이라 큰 장벽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⑩

독자 요청에 〈내일교육〉이 답하다

취재 박선영 리포터 hena2020@naeil.com
도움말 김상근 교사(서울 덕원여자등학교)